



《입사귀와 앞사귀》 식은 죽 먹기! 퀴즈


 《입사귀와 앞사귀》에서 등장한 **바람**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.

- 준호는 살랑살랑 부는 **산들바람**에 기분이 좋아졌다.
- 오빠가 쓴 동시가 어린이신문에 실리자, **신바람**이 났다. “야호!”
- 쌀쌀한 **서릿바람**에 꽃들이 ‘덜덜덜’ 신음했다.
- 소나무숲 사이로 **솔바람**이 불어와 우리의 땀을 식혀 주었다.
- 하늬바람**이 불어와 찬 기운을 밀어냈다.


 뽕잎의 방귀처럼 나뭇잎이 보글보글 뽀어 내는 것은 무엇일까요?

- 질소 : 동생과 나눠 먹으려고 대용량 과자를 샀더니, **질소**만 한가득이더라!
- 젖소 : **젖소**의 방귀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.
- 미소 : **미소** 짓는 얼굴에 어찌 침 뱉을 수 있을까?
- 산소 : 우주 공간에는 **산소**가 거의 없어서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려워.
- 주소 : **주소**도 개인정보라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.

 소 소 ♪ ‘소’자로 끝나는 말은 ♪? 채소! (), (), (), ()

 **입이 하는 일**을 잘못 이해한 친구는 누구일까요?

- 수영할 때 ‘음파음파’ 입으로 숨쉬기도 해요.
- 긴 손톱을 물어뜯는데 입이 제격이죠.
- 우리 엄마는 봄만 되면 도다리쑥국이 먹고 싶대.
-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 걱정이 다 사라져요.
- 말과 침묵 모두 입의 역할이에요.

 입사귀가 뽕잎에게 미소를 보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

- 호기심 : 요즘 네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궁금해.
- 질투심 : 줄넘기를 잘하는 널 보면 나도 모르게 샘이 나.
- 배려심 : 지하철의 핑크 좌석은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야.
- 인내심 : 놀이공원 입장 줄이 길었지만,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어.
- 자부심 : 약속을 지킨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 자부심을 느꼈어.

Why? 작가는 왜?

작가는 왜 《입사귀와 앞사귀》라는 제목을 지었을까요? 혹시 맞춤법이 틀린 걸까요?

먼저 전래동요 “가자 가자 가자 감나무 ♪

오자 오자 오자 옷나무 ♪”처럼

‘입’과 ‘앞’, 소리가 닮은 말을 활용해 친구들과 말놀이를 하고 싶었대요.

이처럼 비슷한 소리를 이용해 재미를 주는 표현 방법을 ‘언어 유희’라고 해요.

그렇다면 또 다른 의도는 무엇일까요? 입사귀와 앞사귀는 왜 다를까요?



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.

이유는



입사귀는 언제 가장 용기를 냈을까요?

- ‘앞 발전소’ 앞에서 엄마, 아빠와 헤어질 때
-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
- 둘째 날 아침 코피가 났을 때
-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




이유를 써보세요.



여러분도 입사귀처럼 당황한 적이 있나요?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보세요.


 입사귀가 친구 뽕잎에게 **말 대신 미소**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?

- 부끄러워서
- 친구를 배려해서
- 할 말이 없어서
-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

 문장으로 완성해보세요.

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된 적 있나요?

내 마음이 전달된 순간을 떠올리며 한 가지 써보세요.

 ‘말 vs 침묵’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?

- 말로 위로하기
- 가만히 있어주기

 나는 _____가 더 좋다. 왜냐하면

 나는 말과 침묵 대신 _____으로 마음을 전해본 적이 있다.

왜냐하면
